



# “한국군 감축·복무 단축 우려된다”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하원 군사위 증언

## “북 핵무기 보유 가능...위협 감안해야”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지시각으로 7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군의 ‘국방 개혁 2020’에 따른 병력감축과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주목된다.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군은 현재 지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7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20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병력 기준으로 46% 감축이며 육군 기준으로는 45%를 줄이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정부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접근은 병력충원에 부담을 주거나 공동화(hollowness) 또는 작은 군대로 귀결될 수 있다”며

“복무단축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도시라고 있는 위협에 대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은 성공적인 ‘국방개혁 2020’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동맹 협의과정을 통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대북 억제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가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 “북한군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언급은 했지만 우리 군의 병력감축과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잠잠했던 안보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강용희(육군 대령)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는 이 같은 과정을 우려한 듯 8일 “동맹군 사령관으로서의 원칙적이고 개인적인 바람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벨 사령관은 또 1994년 이후 영변 원자로에 보관됐던 사용후 핵연료봉과 지난 3년간 같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사용후 핵연료봉으로부터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북한은 현재 수 개의 핵무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40~5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현장과 시각

### 광주체전 준비, 이렇게 썰렁해서야



최재호  
체육부 차장

“올 해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해요?”

지난 1일 열린 3·1 마라톤대회때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난 한 시민이 던진 물음이었다. 경기장에 “2007년 10월 전국체육대회는 시민체전으로” 라는 광주체전 홍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보고 한 말이다.

남너노소 골고루 10여 명에게 “올해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줄 아느냐”는 질문을 더 던져 봤다. 그러나 답변은 침묵과 미소뿐, 대부분 광주가 국체를 치르는 줄 모르고 있었다.

10월 체전이 열리기까지는 일곱달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외지인은 커녕 광주시민들조차 올해 광주에서 체전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포츠 전문분야에 걸쳐 경기내용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월드컵·올림픽등 수준급 국제경기로 눈높이가 향상됐지만 전국체전은 여전히 스포츠 스타의 등용문이자 아마추어 스포츠 최대의 축제다. 게다가 주최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이벤트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우선 광주시 당국의 노력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3월까지의 지상과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4월부터 지주형 홍보탑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6·7월경부터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년 전에 광주에서 체전이 열렸는데 인터넷 홍보만 빼면 그때와 별반 다른게 없다. 플래카드와 지주형 홍보탑이란 것도 그렇다. 홍보탑하면 광주역 앞이나 도청 분수대 인근의 사각기둥이 연상되는데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는 구조물 아닌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홍보탑의 문구를 꼼꼼히 읽어 주길 기대하는 모양인데 어리없는 바람이다.

올해 체전에는 선수·임원만 총 3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이들은 실전형태의 리허설이 열리는 체전 개막 2~3개월 전부터 광주에 몰려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전북대지방자치 연구소에 따르면 광주는 이번 체전을 통해 약 4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체전을 찾아 광주에 오거나 행사 후 다시 오는 일반 관광객 유발 효과는 968억원이며 4천833명의 고용유발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오랜만에 큰 잔치가 아닐 수 없는데 성패는 결국 잔치 상차림, 즉 준비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성과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광주시의 준비가 절실하다.

/lion@kwangju.co.kr

# ‘쌀 제외’ 등 농산물 분야가 최대 고비

## 한미 FTA 8차 협상 시한 임박 핵심 현안 ‘2+2’ 협상서 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패를 결정 지을 8차 협상이 8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됐다. 양측은 대규모 협상단이 참여하는 본 협상으로는 마지막인 이번 협상에서 극소수 쟁점을 제외하고 모두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측은 “한미 양국이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통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양측의 주요 분과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8차 협상 기간 모든 분야에서 전향적

인 자세를 견지, 최대한 쟁점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과회의와 함께 양측 분과장과 수석대표만 참여하는 ‘2+2’ 협상을 수시로 열기로 했다.

양측은 상품, 섬유, 통관·원산지, 무역구제, 기술장벽(TBT),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등 10개 분과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특히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을 다루는 무역구제는 이날 하루만 회의를 갖기로 해 ‘2+2’ 협상이나 8차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쟁점 타결이 모색될 전망이다.

우리측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협정문과 함께 관계 양허안(개방안)과 서비스 유

보안에 대한 협상을 8차 협상 기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특례 등은 8차 협상이후 오는 3월말 사이에 진행될 고위급 협의 등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진다.

한편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더 대사는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5.6일 열린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에게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민 차관보가 7일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한미 FTA 8차 협상 주요 쟁점

한국	쟁점분야	미국
- 반덤핑 절차 개선 절차 중단 제시	무역구제	- 법개정 불가, 절차안 수용여부 결정
-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세율체계 개편 수용 여부 결정	자동차	-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개편 등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 특허 연장 기간 조정 검토 - 미국 제약사 약값 결정 과정에 이익제기 절차 논의 검토	의약품	- 의약품 특허자료 독점 금지요구 - 비의약품 규제 강화
- 쌀 제외, 저용량당량제 유지, 세이프가드 도입 - 민간품목 최대한 예외 인정	농산물	- 쇠고기 등 시장 개방 요구 확대
- 200개 품목 즉시 관세 철폐, 전통품 5년내 관세 철폐 - 원산지 기준 판정 제외 품목 인정	섬유	- 세이프가드 도입, 우회 수출 방지대책 요구 - 원사 원산지 기준 엄격 적용, 일부 품목 완화 가능
- 기간 통신 및 케이블 TV 지분 확대 불가 - 전문직 비저쿼터 인정, 해운업 진출 요구	서비스	- 기간 통신 및 케이블 TV 지분 확대 요구 - 법률서비스 국내 합자, 투자, 고용허용 요구
-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요구	원산지	- 협상 대상 배제

1/3(9/금)~11(일)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3/12(월) 정상영업 합니다

Life Stylist 현대백화점 HYUNDAI



## 현대LG카드(현대백화점카드/현대카드S 포함) 구매고객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진흥 명수증 할인 가능 | 중정기간 : 2007. 3월 9일(금)~3월 18일(일) | 중정장소 : 8층 사무실 중정 데스크

	
20만원이상 구매시 1만원 현대상품권	40만원이상 구매시 2만원 현대상품권
	
60만원이상 구매시 3만원 현대상품권	100만원이상 구매시 5만원 현대상품권

**중정기간**  
당일 현대LG카드 (현대백화점카드/현대카드S 포함) 구매한 본인 명수증에 한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한 개의 명수증을 분할하여 상품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간 중 다른 행사와 중복하여 중정하지 않으며, 협상명 명수증/상품권 기준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만 해당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산세(과금, 소형가전등) 100% 인정/식음/보합/역기류는 구매금액의 50%만 인정합니다.

**중정 제외대상**  
일회/상품권/문화센터/여행사/인대매점(식당)/가죽/인경침/일부 매점은 제외됩니다.